

## 문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 - 『이stanbul, 도시 그리고 추억』의 문학 공간 답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

|이 난 아\*\*|

Lee, Nan-A

## Study on Plans to Facilitate Literary Education

### - With focus on the field investigation contents of literary spaces in *Istanbul: Memories and the City* -

It is undeniable that literary space is a factor of an author's life and experience. Istanbul is a city which had an extremely great influence on Orhan Pamuk's works and in which most of his works were set, making literary field investigation on it effective for understanding Orhan Pamuk and his works. Especially unlike the spaces Pamuk transformed and created in his works of fiction, actual spaces were reflected in *Istanbul: Memories and the City* according to the autobiographical nature of the work, offering an advantage in a sense that the field investigations on the city can let people experience the literary spaces from the work more vividly.

Various literary spaces in Istanbul are more than just spaces in Pamuk's novels; they are the spaces in which the author was born and has lived to date and which have been settings of his diverse works. Hence, making field investigations on various parts of the city described in his works is one of the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3S1A5A2A01017502).

\*\*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 조교수, E-mail: nanalee@gw.kmu.ac.kr



ways to understand the past and future of the author and Istanbul.

In programs for students, encouraging students to understand the author alongside the anthropogeographical traits of the region related to the author's work by appropriately arranging the author's biographical factors and the historical, literary, geographical, and cultural inheritance-related factors of the region should precede. For deepening and expanding knowledge in the course of educ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lecturers and students to participate together in activities including planning, executing, and evaluating the field investigations on literary spaces.

However,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tanbul, is a city in a foreign country—which means that visiting the region can be difficult for some students—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aids for achieving similar effects without an actual field investigation is necessar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wo-dimensional contents for literary education can only be possible through proposing and actively utilizing various models of educational contents in the sphere of the humanities by preparing contents from multiple angles. With that as the basis, inducing the combination of literary space resources in which literature and space are combined and culture industr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industry in a comprehensive sense.

**[Key Words : Turkish Literature, Orhan Pmuk, Literary Education, Literary Spaces, Investigatin Contents, İstanbul, Anthropogeographical]**

## I. 서론

현 시대에 들어 와 문학교육 분야에서는 단순히 문학에 대한 지식을 전수 혹은 전달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학습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문학 수업에 동참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문학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텍스트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학습하는 고전적인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생동적으로 체험하는 향유와 재생산의 대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의 대두와 함께 고도로 발전한 전자영상 매체가 지금까지 활자매체

의 총아로 군림해온 문학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이미지의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객관적인 현상이나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과학이나 역사보다 주관적 직관과 감성을 중시하는 문학이 오히려 우월하다고 주장해 온 것은 바로 문학이 지닌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자기반성과 내면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정신과 내적 대화를 나누는 행위야말로 광활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색하는 지적 모험이며 내적 탐구이다(이난아 2012, 208).

이렇듯 급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다매체 그리고 문화 산업의 시대에 발맞춰 대학교육 현장의 문학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에 수동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기반한 문학 교육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을 문학으로 끌어당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문학 교육 프로그램은 문학 텍스트에 묘사된 공간을 주로 기행 하는 문학답사라고 할 수 있다. 답사는 단순히 주변의 풍광과 여흥을 즐기는 관광이 아니다. 기행이 대상 현장에 방문해 그 지역을 배우고 느끼고 학습이라면, 답사는 기행보다 더 적극적인 ‘학습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의 역동성과 현장성을 강조하여 문학을 ‘개인적인 독서체험에서 집단적인 활동체험으로 변화’ 시키고 ‘문학작품을 문화 산업’에 적용시키려는 일련의 작업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김명준 2005, 33).

주지하는 바, 문학공간은 문학작품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무대 혹은 현장을 의미한다. 독자들은 문학 작품을 읽으며 머릿속에서 작품을 재현시키는데, 문학 공간은 이러한 재현 과정에서 작품 전체의 배경과 분위기를 형성하여 작가와 독자 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독자들은 문학 작품 속 인물, 성격, 감정, 사건 그리고 분위기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특히 작품의 ‘총체적 이해’나 ‘구조적 이해



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종건 2004, 19).

이 글에서는 이러한 총체적 이해 차원에서 오르한 파묵(Orhan Pamuk, 1952~)이라는 작가를 탄생시킨 실제 배경이며, 오르한 파묵의 작품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이스탄불의 문학 공간을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데 있어, 자전적이며 회고록 성격을 띤 에세이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을 연구 텍스트로 삼아 문학 답사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자전적 회고록이라는 특성상, 작가의 실제 삶이 서술되기 때문에, 허구인 소설보다는 문학공간으로 등장하는 장소나 지역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어 문학답사로서 최적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스탄불에서 나고 자란 파묵은 세계적으로 ‘터키 작가 라키보다는 ‘이스탄불 작가’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작가 스스로도 “나는 이스탄불 소설가입니다.”<sup>1)</sup>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문학적, 공간적 배경이 자신을 키운 도시 이스탄불임을 밝혔다.

우리는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장소를 체험함으로써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작가의 확장된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속 공간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는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학답사는 작가와 독자와의 공감 및 소통을 가져와 감정의 공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문학 교육이 지향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II. 자전적 에세이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터키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지형적 특징으로 대륙과 문명과 역사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며, 네 개의 바다 - 에게 해, 지중해, 마르마라 해, 흑해 - 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환경 때문에 동·서양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1) Orhan Pamuk (1999). *Öteki Renkler*;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p.295.

터키를 대표하는 이스탄불은 과거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 즉, 두 개의 대륙에 속해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이며, 그 도시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보스포루스 해협은 흑해, 마르마라 해 그리고 골든 혼 만(灣)으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문명을 이룩한 여러 제국들의 수도라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인 성지라는 과거의 영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역사에 관해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이스탄불은 과거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다. 이 때문에 이스탄불에는 과거의 찬란하고 영화로웠던 유산이 도시 전체에 산재해 있으며, 대제국의 수도였던 영예와 더불어 시간이 축적한 고풍스러움과 그 숨결이 고스란히 숨 쉬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스탄불을 일컬어 ‘인류 문명이 살아 있는 거대한 옥외 박물관’ 이라고 언급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가 답사하고자 하는 이스탄불은 이러한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현장 혹은 동·서양 문화의 교차로로서의 장소가 아닌 오묘한 파묵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학 작품의 공간이다. 파묵은 이스탄불을 화려한 제국의 중심으로 묘사하지 않고, 폐허의 정서가 감도는 음울한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건 어쩌면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스탄불의 몰락이 부여한 비애의 감정이 이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오묘한 파묵의 모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름 아닌 도시 ‘이스탄불’ 이다. 이스탄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까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파묵 역시 자신에게 있어 이스탄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 항상 ‘기원’ 을 묻곤 한다. 내게 있어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남들이 내게 나의 삶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나는 40년 전에 이스탄불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탄불에서 살며 여기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고, 이스탄불 거리를 걷습니다. (...)도시의 거리에서 걷고, 도시의 삶을 호흡하고 글을 쓰는 것. 이것이 나의 낙



관적인 사고입니다(Pamuk 1999, 295)라는 말로 시사하고 있다.

이리하여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은 자연스레 이스탄불과 동일시된다. 문학과 도시의 상관관계는 오르한 파묵과 이스탄불이라는 관계를 넘어 세계 유수의 여러 작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작품의 토대가 된 도시 더블린을 떠올리며, 카프카에게는 프라하, 랭보에게는 파리를 연상하며 그 작품의 존재 의미를, 등장인물과 시간의 존재 의미를 가능하게 만든 공간, 즉 도시라는 존재와 자연스럽게 맞닥뜨린다. 도시는 문학이라는 예술에서 단순히 공간적 배경을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 작가나 등장인물이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문학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영감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이난아 2008, 203).<sup>2)</sup>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한 마디로 파묵이라는 작가의 정체성이자 내적 감수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은 단순한 도시 관광 가이드북이나 작가 개인의 사적인 기록을 나열한 자서전<sup>3)</sup>이나 회상록 차원을 뛰어 넘는 도시와 개인사를 병렬하여 다룬 작품이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파묵은 이 작품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우리 작은 가족이 여기 저기 균열과 파열로 부서리지며 가난해져 붕괴되고 있을 때, 할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어떤 슬픔이 일었다. 오스만 제국의 몰락이 이스탄불에 부여한 의기소침과 상실감 그리고 비애감이 또 다른 구실로 약간은 뒤늦게, 결국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왔던 것이다” (파묵 2008, 35).

2) 한국 문단의 경우를 보면,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서울의 일정한 장소를 택하고 있지만, 이 작품들은 대부분 서울이라는 도시 그 자체가 텍스트의 주인공이 아니며, 단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만이 묘사되고 있다. 이밖에도 박태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종로나 황석영 소설의 삼포, 김승옥의 무진, 이순원의 수색 등 여러 공간적 배경을 일례로 들 수 있겠으나, 등장인물과 도시라는 배경 그리고 이야기가 하나로 완전히 맞물려진 작품을 찾기는 힘들다. 이난아 (2008), “도시와 문학: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2호, 209-210쪽.

3) 르륵스가 규정한 자서전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삶, 특히 자신의 성격의 스토리에 초점을 두고서 누군가 자신의 존재로부터 만들어내는 산문으로 된 회고록 이야기” 곧 자서전의 형식이자 작가, 서술자 그리고 주인공이 동일한 인물임을 말한다. 최경도 (2008), “전기, 자서전, 소설: 자기표현 양식의 변화”, 『외국문학연구』 제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124쪽.

이렇듯 이 작품은 단순히 이스탄불을 개인적 기억이나 추억이라기보다는 역사적 흐름과 가족사를 맞물려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역사가 축적되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은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의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유년기와 청소년기)가 이스탄불 변천사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즉, 한 편으로 작가로서의 성장과정, 가족사, 개인사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자신이 어떻게 체화했는지에 대한 기록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묵이 “콘래드, 나보코프, 나이폴처럼 언어, 국민, 문화, 나라, 대륙, 더욱이 문명을 성공적으로 바꾸면서 글을 쓴 작가들이 있다. 그들이 창조적 정체성을 유배 혹은 이주에서 얻었던 것처럼, 내가 항상 같은 집, 거리, 풍경 그리고 도시에 매여 사는 것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탄불에 대한 이 예속감은, 도시의 운명도 사람의 성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파묵 2008, 19-20)라고 서술한 바 있듯이, 이스탄불은 그의 작가적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이 자전적 회고록이라는 성격상 개인의 삶이 부각되고 있으며, 파묵의 실제 체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주관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파묵은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객관적 사실들을 묘사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즉, 무척 내밀한 경험과 감성적인 사적인 기록과 함께 특히 외부인들 예컨대 네르발, 고티에, 플로베르 등의 이스탄불에 관한 글, 멜링의 회화를 통해 이스탄불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파묵은 현재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비애 혹은 ‘몰락’이라는 단어로 요약한다.

“한편 이 죽은 문화, 몰락한 제국의 비애는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이는 내게 서구화와 현대화 바람보다는 몰락한 제국이 남긴 슬픔을 안겨 주었고, 가슴 아픈 기억들로 가득 찬 물건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허둥거리는 느낌을 주었다. 갑자기 죽



은 아름다운 애인이 남겨 놓은 파멸적인 추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옷, 장신구, 물건, 사진들을 다급하게 버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강하고 새로운 것, 서구적 혹은 토착적인 현대적 세계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은 더더욱 과거를 지우는 셈이 되었다. 저택들은 불타고 허물어졌으며, 문화는 단순화되고 불완전해졌고, 집 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문화의 박물관처럼 정렬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서서히 나의 내면에 영향을 미친 이 모든 이상함과 슬픔을 나는 답답함과 침울함으로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었다” (파묵 2008, 51-52).

파묵이 이스탄불을 몰락의 이미지, 비애의 이미지로 느꼈던 것은 찬란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 삼 대륙을 호령했던 힘과 화려함은 사라지고, 무기력감, 패배감, 가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탄불 도시 전체에 대해 느꼈던 이 부정적인 인식들은 오히려 그에게 작가로서의 창작의 근원이 되어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 하는 데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역으로 그가 이스탄불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에서는 이스탄불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다. 이 작품이 자전적 회고록이지만 작가인 오르한 파묵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스탄불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구성이라는 의미이다.

파묵은 이 작품에서 서양인 관찰자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스탄불을 과장하여 이국적으로 만든 ‘관광지로서의 이스탄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그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작품에 텍스트에 묻어나는 파묵 고유의 감성을 문학 공간 답사 콘텐츠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한 인물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작품에 서술된 공간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학교육 현장에 연계하면, 학습자들은 작가의 경험이 이스탄불이라는 문학공간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은 난해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경감시키고, 오르한 파묵의 작품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답사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오르한 파묵의 문학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사료되는 주요 공간들을 선정했음을 밝힌다.

### III.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의 답사 공간

한 작가가 창출한 파급력이란 때로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을 읽은 독자들은 파묵이 서술한 이스탄불을 보기 위해 이스탄불 여행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터키의 한 유력 일간지인 〈휘리예트 Hürriyet〉에는 “스웨덴에서 이스탄불로의 오르한 파묵 여행”이라는 머리기사에서 “오르한 파묵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터키 특히 이스탄불에 대한 스웨덴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특히 파묵의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이 번역 출판된 후 스웨덴 사람들의 터키 방문이 급증했다.”<sup>4)</sup>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 한 작가의 작품이 지역 관광 자원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문학기행 혹은 문학 답사의 유형은 크게 ‘문학창작의 영감을 얻기 위한 작가의 여행’, 독자가 책을 통해 수행하는 가상의 여행,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특정 지역을 여행하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손정훈 2010, 657-658)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 글은 세 번째 유형 즉, ‘작가나 작품과 관련된 특정 지역을 여행하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해당되며,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을 찾아 가는 여행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허버트는 답사자들이 문학 기행 혹은 문학 답사를 하는 이유로, “첫째, 관광객들은 작가의 삶과 관련된 장소들(예를 들면 출생지, 혹은 집필 장소)을 방문

4) <http://arama.hurriyet.com.tr/arsivnews.aspx?id=8501782>, 2008 3월 20일자.



함으로써 향수를 느끼거나 경의를 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광객들이 문학기행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곳이 어떤 소설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관광객들은 특정한 작가나 이야기보다 색다르고 깊이 있는 감정을 경험하기 위하여 관광지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은 작품 자체보다 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곳을 둘러보고 싶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방문한다.” (이진형 2004, 108-109)와 같은 것들을 들면서 이를 통해 독후 감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역사 이래로 터키가 겪고 있는 동양과 서양 문명의 조화 혹은 충돌을 특히 이스탄불 이라는 도시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파묵이 자신의 작품들에서 끊임없이 천착했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자전적 에세이라는 작품의 특성상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어 있어, 작가의 경험 공간을 실제 답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학 공간이 작가의 생애와 체험의 한 요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스탄불은 오르한 파묵의 작품 세계에 지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도시이자, 파묵의 대부분의 작품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문학답사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이다. 특히 파묵이 허구의 산물인 소설 속에서 변형시켜 창조했던 공간과는 달리,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은 자전적인 작품 특성 상 실제 공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문학답사를 통해 작품 속 공간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에는 파묵의 성장한 니산타쉬 구역과 ‘파묵 아파트’ (『제브데트 씨와 아들들』, 『검은 책』, 『순수 박물관』 등 파묵의 거의 모든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된 보스포루스 해협, 베이올루와 탁심 광장, 목조 가옥들, 비잔틴 유적들과 이스탄불 변두리 마을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자 역사적 공간들인 성소피아 박물관, 톱카프 궁전, 술탄 아흐메트 사원 등 많은 장소들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문학공간을 다 다루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지면상 작품에 묘사되는 구체적 공간인 ‘작가의 경험 공간’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며, ‘역사적 공간’은 다

른 지면을 통해 소개할 것임을 밝힌다.

### 3-1. 보스포루스

보스포루스 답사는 자연탐방과 결합된 문학 공간 루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연환경과 작가 그리고 작품을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작품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

보스포루스 해는 지중해와 흑해를 이어주고, 유럽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가로 지르는 해협이다. 이 해협에 1973년에 ‘보스포루스 대교’, 1988년에 ‘파티흐 스탄 메흐메트 교’가 건설되면서 두 대륙은 연결되어 왕래하기 시작했다.

이 보스포루스 공간은 파묵의 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빼놓을 수 없는 문학 공간이다. 일례로 소설 『순수 박물관』에서는 주인공 케말이 약혼녀와 함께 도피의 장소를 보스포루스에 있는 별장에서 머무는 장면이 나올 뿐 만 아니라, 케말이 사랑했던 여자인 뤼순과 데이트를 즐겼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한 챕터에 “보스포루스의 밤, 후주르 식당”이 있을 만큼 이스탄불과 파묵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오르한 파묵은 보스포루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작품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으며, 이 자전적 에세이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학 공간 중 하나이다. 작품 내에서 보스포루스를 전면에 내세운 챕터로, “6장: 보스포루스 탐험”, “7장: 멜링의 보스포루스 풍경”, “22장: 보스포루스를 지나가는 배들, 화재, 가난, 이사 그리고 다른 큰 재앙들”, “30장: 보스포루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나는 연기” 등이 있을 만큼 이 공간은 파묵의 삶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보스포루스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바라보며 자랐던 공간이다. 파묵은 보스포루스를 지나가는 배들이 굴뚝으로 뿜어내는 연기가 도시로 퍼지는 모습을,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보스포루스의 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며 색을 바꾸는 모습을 좋아했다.



파묵은 보스포루스는 이스탄불의 혼이며 힘의 원천이라고 언급하며, 이 작품 전체에 깔려 있는 '비에', '멜랑콜리'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서술하고 있다.

“도시가 패배, 파괴, 좌절, 침울, 빈곤으로 은밀히 썩고 있는 반면, 보스포루스는 삶에 대한 애착, 흥분, 행복감으로 내 머릿속에서 깊이 합치되었다. 이스탄불의 혼과 힘은 보스포루스에서 비롯된다” (파묵 2008, 75).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 사진출처: 필자〉

“보스포루스에서 노니는 즐거움이란, 거대하고, 역사적이고, 방치된 도시 속에 살면서 깊고, 힘차고, 변화무쌍한 바다의 자유와 힘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이다. 보스포루스의 급류에서 빠르게 전진하는 여행객은 복잡한 도시의 더러움, 연기, 소음의 한가운데서 바다의 힘이 자신에게 전이되고, 그 모든 군중, 역사, 건물 속에서 여전히 홀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파묵 2008, 79).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에서 이스탄불이 전반적으로 상실의 이미지, 멜랑콜리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 보스포루스를 서술하는 지면에

서 이 공간은 활력이 넘치며, 변화무쌍하며,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자유의 에너지가 분출된다.

“어린 시절 모두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도 느꼈던 보스포루스의 즐거움 중 하나는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의 문명과 문화가 서구의 영향 아래 들어가긴 했지만, 자신의 고유함과 힘을 잃지 않은 매우 번창한 시기의 유적들을 보는 것이었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해안가 저택의 멋진 철문, 여전히 견재 하는 이끼가 낀 두 겹고 높은 벽, 아직 불에 타지 않은 창문 덧문, 목공 기술, 혹은 해안 저택들 뒤에 있는 높은 언덕까지 펼쳐져 있으며 유다 나무, 소나무, 100년 된 플라타너스로 뒤덮인 어둠 속 정원들을 보고는 시대를 마감하고 남긴 휘황찬란한 문명의 흔적들을 감지하곤 했다” (파묵 2008, 80-81).

이렇듯 보스포루스에서 과거의 영광스런 역사의 흔적들을 슬픈 회상을 하며 보는 것도 피할 수 없지만, 해안 저택 등 예로부터 부유한 사람들의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여름 별장 등의 역사적 건물들을 보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파묵은 보스포루스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스포루스 해안 주택들을 통해 이미 지나가버린 화려한 제국의 역사를, 한탄만하지 않고 함께 품는다. 이는 배를 타고 파리의 센 강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유적지와 함께 파리지엔의 삶에 에너지와 기쁨을 그곳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



〈보스포루스 해안 저택들, 사진출처: 필자〉

“하지만 보스포루스는 내게 여전히 어린 시절의 보스포루스와 같다. 그러니까 내게 보스포루스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도시와 삶을 견재하게 만드는 무한한 어떤 선(善)과 긍정의 원천이다. 나는 때로 이렇게 생각한다.

‘삶이 그렇게 최악일 수는 없어. 여전히 보스포루스로 산책 나갈 수 있으니까.’ ” (파묵 2008, 91).

파묵에 의하면 보스포루스는 치유와 위로의 공간이자, 선과 긍정의 원천이다. 대도시에서 살면서 갖가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만, 보스포루스를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면 팍팍한 일상생활을 잊고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자유와 일탈, 더 나아가 도피의 공간이기도 하다.

오르한 파묵은 보스포루스의 멋진 해안 저택 등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곳은 이스탄불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결국 보스포루스는 작가가 이스탄불에 대해 느끼는 비애와 멜랑콜리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유일하고 특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보스포루스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해안에 늘어서 있는 여름 별장 들을 감상하면서, 오르한 파묵처럼 그곳 을 지나가는 배를 세어보고, 배의 이름과 종류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3-2. 탁심 광장과 베이올루 지역

이스탄불은 크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신시가지의 가장 변화한 지역은 탁심 광장에서 이스티랄 거리를 통해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가 있는 곳까지 이어지는 베이올루 지역이다.



(이스탄불 신시가지 중심가인 탁심 광장과 베이올루 지도)<sup>5)</sup>

5) 사진 출처: 오르한 파묵 (2008).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13쪽.

“공화국 이후에는 이스탄불 대로라고 불릴 그랑 루 드 페라는 1843년에도 지금과 거의 비슷했다. 네르발은 메블레비하네를 지나가면서 이 대로를 파리에 비유한다. 유행하는 옷들, 세탁소들, 금은방들, 깨끗한 진열장들, 사탕 가게들, 영국과 프랑스 호텔들, 찻집들, 대사관들. 시인이 프랑스 병원(오늘날의 프랑스 문화원)이라고 했던 곳을 지나면 그 장소는 놀랍고, 충격적이며, 두려운 형태로 끝나고 만다. 왜냐하면 오늘날 탁심 광장이라고 부르는, 어린 시절 이후 내가 그 근처에서 살았던 나의 세계의 중심인 가장 넓은 광장을, 네르발은 마차와 퀴프테, 수박이나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터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묵 2008, 203).

파묵은 서양 작가의 인상을 빌어 옛 모습을 간직한 베이올루를 설명하면서, 이 길의 끝에 있는 탁심에 이른다. 이 탁심 광장에서 출발하여 이스탄불 거리를 순회하는 붉은 색 노면전차를 타면 창밖을 통해 베이올루 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



〈탁심 광장에서 베이올루를 관통하는 노면 전차, 사진 출처: 필자〉

“내 어린 시절의 즐거움들 중 하나는 어머니와 베이올루로 쇼핑을 나가는 것, 그리스 사람들이 경영하는 상점에 출입하는 것이었다” (파묵 2008, 238).

이 베이올루 거리는 상점, 영화관, 백화점, 호텔 등이 밀집되어 있는 변화가 이며,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가족들이 주말 나들이를 나오는 곳이다. 어린 시절 파묵은 어머니와 함께 베이올루로 쇼핑가는 것을 즐겼지만, 사춘기 고민 많았던 시절 이 공간은 일종의 도피처로 등장한다.

“어머니와 싸운 뒤 현관문을 닫고 나가 밤의 어둠 속에 잠긴 베이올루 뒷골목을 받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받은 미친 사람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혐오한다고 생각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걷자 오랫동안 걷고 싶은 바람이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타올랐다” (파묵 2008, 489).

“베이올루 거리가, 그 거리의 어두운 구석이, 도망치고 싶은 욕구와 죄책감과 함께 내 머릿속에서 네온사인처럼 꺼지고 다시 켜졌다. 가끔 화가 나고 극도로 예민한 순간에 그랬듯이. 내가 좋아하는 그 반쯤 어둡고 매력적이며, 더럽고, 사악한 도시의 거리에 있는 내가 도피할 두 번째 세계는 이미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파묵 2008, 501).

파묵이 방황의 장소로 베이올루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그 곳은 환락, 소음, 무질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장래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이 그 고민을 잠시 잊고, 무작정 배회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 3-3. 이스탄불 변두리 마을

인문지리 환경 역시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스탄불이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지만 뉴욕의 할렘가가 그러하듯이 이스탄불 역시 가난한 변두리 마을



이 곳곳에 있다.

이 작품에서 이스탄불은 비애, 몰락, 멜랑콜리 같은 이미지 이외에도 변두리, 변방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이스탄불은 유럽 최동단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파묵에 의하면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인 변방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스탄불 사람들이 가난한 변두리 마을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폐허 상태인 도시 성벽이나, 어린 시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루멜리 히사르 혹은 아나톨루 히사르의 성벽과 탑들 위에 풀, 잡초, 담쟁이덩굴, 나무들이 자랄 때 드러난다. 이 아름다움은 가난한 변두리 마을에 있는 부서진 분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반쯤 허물어진 오래된 저택, 100년 된 가스 공장의 폐허, 오래되어 검게 변한 목조 건물의 벽, 담쟁이덩굴과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특별히 결합했을 때 우연히 드러난다” (파묵 2008, 350).

파묵은 변두리 마을의 폐허를 즐기려면 그 도시의 이방인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이방인의 눈으로 보아야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파묵은 반세기 이상을 이스탄불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았지만, 그가 이스탄불의 뒷골목들을 배회하며, 몽상 하며, 그것들을 스케치하면서 청년기를 보냈다. 이러한 이유로 파묵의 작품에서는 이스탄불 중·하류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파묵이 청년기에 이러한 지역을 거닐던 시절이 없었다면, 독자들은 파묵 특유의 우울함과 비애가 서린 작품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폐허가 된 성벽〉



〈비잔틴 유적: 발렌시아 수도교〉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도시의 살아 있는 부분이자 동네의 삶과 비슷한 것을, 룸 마을인 사마트야나, ‘도시의 계토’ 라고 했던 유대인 마을 발라트에서 보았다. (...) 산책을 하는 내내 거리와 집과 나무 사이에서 비잔틴의 유적인 벽과 거대한 수도교의 일부를 볼 때마다 (...)” (파묵 2008, 317).

파묵은 과거에 이 도시를 방문해서 긴 산책을 즐긴 고티에의 경험을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그가 이스탄불은 비애의 도시라고 했던 것에 행복을 느낀다. 그는 과거 이스탄불을 묘사했던 작가나 이방인 작가의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낸 이스탄불이 그에게 준 감정이 비애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다.

“폐허와 비애, 그리고 한 때 소유했던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탄불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다른 물건들을 얻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폐허를 보기 위해 나는 그곳에서 떨어져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갔다” (파묵 2008, 482).

이렇듯 파묵은 역사와 폐허가 삶과 맞물려 있는 이스탄불의 풍경을 보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느끼게 된 작가이며, 이러한 풍경이 그의 창작활동의 밑



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가난한 변두리 마을이나 폐허들은 답사지로 부적당 할 수 있지만, 장차 세계적인 문인으로 거듭 날 작가가 청소년기에 이곳을 배회하며 느꼈던 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문학답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파묵이 자주 들렀던 유럽화된 거리인 탁심 광장이나 베이올루 지역 같은 변화를 답사한 후 이 지역들로 간다면, 서구화를 갈망했던 터키 사회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파묵의 영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작품 전반에 스며있는 이스탄불 고유의 비애와 멜랑콜리 감정 역시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4. 니산타쉬와 파묵 아파트

오르한 파묵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이스탄불의 유럽지구에 위치한 니산타쉬 지역이다.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샤넬, 루이비통 등의 명품 상점들이 즐비해 있는 거리로도 유명하다. 예컨대 터키 중상류층들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대변해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이 지역은 파묵의 많은 작품에 나오는 공간적 동일성의 사례이다. 소설 『새로운 인생』, 『순수 박물관』, 『눈』 등 파묵 작품의 남자주인공들은 모두 이 니산타쉬 출신들이다. 이 등장인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파묵의 페르소나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 지역에 바로 '파묵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파묵의 말에 따르면, '파묵 아파트'는 어머니가 그를 품에 안고 처음 세상을 보여주고, 처음 사진을 찍었던 곳이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기 그리고 장년기를 보냈던 작가의 생활공간이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하여 내가 살았던 집, 거리 그리고 마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오십 년 후에(가끔 이스탄불의 다른 곳에서 살기도 했지만) 다시 파묵 아파트에,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처음 세상을 보여 주고, 처음 사진을 찍



있던 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스탄불의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오르한에 대한 생각과 이것에서 비롯된 위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파묵 2008, 19).

파묵이 반세기 동안 이스탄불의 ‘파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산 것은 도시에 대한 그의 예속감을 대변해준다. 우리에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중국에는 항상 이 ‘예속감’을 느끼는 곳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듯이, 파묵 아파트는 오르한 파묵에게 있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항상 같은 집, 거리, 풍경 그리고 도시에 매여 사는 것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스탄불에 대한 나의 이 예속감은, 도시의 운명도 사람의 성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파묵 2008, 20).

모든 예술작품 특히 문학작품은 작가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스탄불에서 나고 성장했으며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파묵의 작품 속에서도 이스탄불에서의 그의 삶이 반영되고 있다. 작가의 체험과 정신이 주로 그의 작품에 기술되어 있다는 전기역사주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파묵의 문단 데뷔작인 『제브레트 씨와 아들들』에 나오는 가족과 아파트 생활은 결국 파묵 자신의 가족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파묵 아파트’의 각 층에서 다른 친척들과 함께 사는 주인공의 생활은 『검은 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묘사된 주요한 공간이다. ‘파묵 아파트’는 작가의 전기적 환경이 그의 작품들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학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파묵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 필자〉



〈파묵 아파트 현판, 사진출처: 필자〉

“우리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 할머니, 삼촌들, 고모들, 숙모들은 5층 짜리 아파트의 각 층에서 살았다. 내가 태어나기 일 년 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대가족들처럼 모두 함께 석조 대저택 안에서 다른 방과 다른 구역에서 살다가, 그 건물을 사립 초등학교에 임대하고, 1951년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에 지금 우리가 4층에 살고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를 지어 당시의 유행에 따라 자랑스럽게 현관 출입구에 ‘파묵 아파트’ 라고 써 놓았다” (파묵 2008, 24).

작가는 이 ‘파묵 아파트’ 에서 살면서 전통과 서구화 문명의 충돌, 친척들 간의 재산 분배 갈등, 부모님의 불화 등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된다. 대가족이 파묵 아파트라는 한 공간의 각기 다른 층에 기거하다보니 당연히 파묵의 유년 시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파묵의 다른 작품들에서 아파트 주변의 다른 문학 공간들, 예컨대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검은 책』 에 한 챕터로 설정된 알라딘의 가게, 경찰서, 『순수 박물관』 에서 등장인물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테쉬비키에 사원 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간들 역시 답사지로서 빠질 수 없는 장소들이다.

한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작품을 낳은 작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의



탄생지이자 소설의 주요 공간이 된 '파묵 아파트'는 현대도 아파트 이름과 함께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답사지로써 빼어 놓을 수 없는 생생한 공간이자, 오묘한 파묵의 생애의 한 요소를 체험 및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답사 거점이다.

## V. 결론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더 막대한 양의 유혹적이며 다양한 콘텐츠들을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빠르고 생생하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홍수 속에서 차별하게 집중하여 상상 속에서 향유해야 하는 문학은 이미지와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문학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 학습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학의 가장 커다란 장점인 상상력을 뒷받침해주는 실체화된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다. 독자들은 문학작품을 읽으며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면화하면서 상상력을 펼치게 된다. 만약 독자가 실재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상상을 펼칠 수 있다면 작품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끝없이 자신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콘텐츠로 문학답사를 활용할 수 있다. 책 속의 배경이 되는 공간, 작가의 고향, 작가가 집필하는 공간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하는 문학 답사를 통해 자신이 읽은 작품 속의 공간을 더욱 더 사실적으로 그려보고, 작중인물들이 느꼈던 감점, 행동 그리고 시대상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에 묘사된 대표적인 문학 공간을 선별하여 다루어 보면서, 오묘한 파묵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본문에서 제시된 이스탄불의 다양한



문학공간은 단순히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을 넘어서 작가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며, 다양한 작품의 배경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 묘사되고 있는 이스탄불 곳곳을 답사하는 것은, 작가 그리고 이스탄불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작가의 전기적 요소, 지역의 역사적 요소, 문학적 요소, 지리적 요소, 문화유산 관련 요소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학생들이 작가와 해당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함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순정훈 2010, 666). 이에 이 글에서는 위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대상 작품에서 추출해 적용 제시해보았다. 더 바람직한 것은 교육 과정에서 지식이 심화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강의자와 수강자가 함께 답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지역인 이스탄불은 국내가 아닌 해외이므로 여러 가지 여건 상 수강생들의 답사가 실현되기 힘들 경우를 감안하여, 실제 답사를 하지 않고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보재 개발이 요구된다. 입체적인 문학 교육 콘텐츠 모델을 마련하여 인문학 영역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 모델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평면적인 문학 교육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문학과 공간이 결합된 문학 공간 자원과 문화산업의 상호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문학 공간 연구의 학문적·교육적 성과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21세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터키문학, 오르한 파묵, 문학교육, 문학공간, 답사 콘텐츠, 이스탄불, 인문지리]



## 참고문헌

- 김명준 (2005). “문학공간에 대한 분석적 기술방법”, 『한국문학공간과 문학콘텐츠』, 서울: 청동거울.
- 김종건 (2004). 『<구인회> 소설의 공간설정과 작가의식』, 서울: 새미.
- 손정훈 (2010). “프랑스의 문학기행루트”, 『프랑스문화예술연구』, 657-681.
- 오르한 파묵 (2008). 『이스탄불, 도시 그리고 추억』, 서울: 민음사.
- 오르한 파묵 (2010). 『순수 박물관 1,2』, 서울: 민음사.
- 오르한 파묵 (2014). 『검은 책 1,2』, 서울: 민음사.
- 이난아 (2008). “도시와 문학: 오르한 파묵의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2호, 203; 117-132.
- 이난아 (2012). “문학공간의 문화콘텐츠화-허구에서 실제로 :오르한 파묵의 『순수 박물관』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31권 2호, 205-227.
- 이진형 (2004). “문학 기행객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참여 동기에 따른 마케팅적 함의”, 『관광학연구』 제28권 3호. 한국관광학회, 103-122.
- 최경도 (2008). “전기, 자서전, 소설: 자기표현 양식의 변화”, 『외국문학연구』 제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117-132.
- Pamuk, Orhan (1999). *Öteki Renkler*,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논문접수일:** 2016년 01월 04일

**심사완료일:** 2016년 02월 02일

**게재확정일:** 2016년 02월 04일

